

他人에 대한 好·惡의 強度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洪 大 植
全北大學校 心理學科

三者關係의 狀況에서 P/O關係의 惡度增加는 好度增加보다 상황의 유쾌도 평정과 안정도 평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P/O關係 好惡의 간격을 각각 매우, 상당히, 다소, 및 약간의 4범주로 구분하였다. P/O관계에서 O는 인물들 중에서 선정하게 하되 호오 두집단 별로 각각 “매우”와 “약간”의 범주의 인물들 골라서 三者關係의 상황에 써넣게 한다음, 상황에 대해 평정케 하였다. 안정도 평정에서는 P/O관계 好惡強度와 P/O관계 好惡間의 相互作用이 有義하여 ($p < .05$) 지지되었으나 유쾌도 평정에서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均衡效果의 全體패턴은 Heider(1958)와 Newcomb(1968)의 理論을 支持치 않았으며, 이런 結果를 설명키 위해 갈등모형(conflict model)과 유사한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人間的 기본적 社會關係는 나(P), 타인(O), 및 이 둘 사이에 介在하는 어떤 對象(X) 사이의 三者관계로 이루어진다(Newcomb, 1953, 1959). Heider(1946, 1958)는 三者間의 正的 및 負的 관계의 組合으로 이루어지는 8個의 三者관계에 대한 均衡과 不均衡을 規定하였다. 그에 의하면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P/O관계)에서 태도가 一致된 狀況은 變化로 向한 긴장이 없는 균형상태이고, 태도가 不一致된 상황은 불균형상태이다. 이와 反面에,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P/O관계)에서 태도가 一致된 상황은 불균형상태이고 태도가 不一致된 상황은 균형상태이다.

Heider의 이론은 三者관계의 狀況의 愉快度, 期待度, 安定度 等의 評定, 各 관계에 대한 변화의 의도, 未完成관계의 완성 등의 面에서 연구되어 왔다(洪大植, 1980 參照).

지금까지 Heider의 이론을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從屬測定値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들을 얻고 있다(洪大植, 1980 參照). 즉,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에서 얻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때, Heider의 이론은 유쾌도 評定에서 完全하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P/O관계의 상황

들에서), 期待度 및 安定度와 같은 認知的 評定에서는 유쾌도 평정보다는 다소 나은 지지를 받았다. 關係變化 意圖의 評定에서는 유쾌도 평정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三者間 各 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완성관계의 완성에서는 다른 측정치들보다 비교적 균형이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Heider의 이론은 지금까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되고 수정되어 왔다. 그 하나는 各 요소간의 관계에 수학적인 正, 負의 부호를 부여하고 이들 부호의 積(product)에 의해서 균형과 불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예 : Cartwright와 Harary, 1956; Feather, 1964, 1967; Wellens와 Thistlethwaite, 1971a, 1971b). 다른 하나의 방향은 경험적 결과들을 토대로 P/O 관계의 正과 負에 따라 狀況의 균형이 달라지며 -P/O관계의 상황들은 비균형되어 있다(nonbalanced)는 주장이다(Newcomb, 1968).

Heider가 제안한 원이론, 수학적 모형들과 Newcomb(1968)의 수정이론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는 관계의 강도나 중요성을 고려치 못

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평을 계속 받아왔다(예 : Feather, 1967, 1971; Insko, 1967; Kiesler, 1969; Murstein 1971). 관계는 단순히 +나 - 관계로 취급되었고, 이들 사이에 연속성은 가정되었다하더라도(예 : Wellens와 Thistlethwaite, 1971a, 1971b) 실험에서는 대체로 피험자 자신이 상황에 가상적으로만 포함되고 있거나, 관계 예상의 종속변인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절히 연구되지 못하였다.

洪大植(1980)의 연구에서는 三者관계 중에서 특히 P/O관계와 P/X관계의 강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의 연구에서는 正的관계와 負의관계의 強度의 증가에 따라서 三者관계의 상황지각에 주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가설은 三者관계에서 他人이나 對象의 好惡強度가 달라짐에 따른 상황판단의 변화에 대한 예언과 균형이론의 수정이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의 가설은 Miller와 그의 동료들(예 : Dollard와 Miller, 1941; Miller, 1959)의 갈등이론에서 目標에 대한 거리가 가까워 질수록 接近하는 힘보다 회피하는 힘이 더 커진다는 負의 목표의 우월현상에 대한 이론과 그 이론을 지지하는 실험결과(Brown, 1948)나 印象形成 연구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負의 情報 우월현상에 대한 보고들(예 : 趙兢鎬, 1976; Anderson, 1965; Feldman, 1966; Hodges, 1974; Warr, 1974)과 평행되고 있다. 그러나 洪大植의 연구 결과에서는 他人(O)과 대상(X)에 대한 好惡강도의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즉 他人에 대한 好惡強度의 P/O관계 好惡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상황의 유래도, 안정도, 기대도 및 관계변화 의도의 평정과 관계의 예언에서 모두 유의치 못했다. 그러나 對象 好惡強度의 일치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일반적으로 이들 5개 측정치들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對象 好惡強度가 弱할 때보다 強할 때 태도가 일치된 상황이나 +P/X관계보다 태도가 불일치된 상황이나 -P/X의 관계에서 더 큰 증속측정치들에서의 변화를 일으켰다.

三者관계의 知覺에서 他人 好惡強度의 효과와 對象好惡強度의 효과와 다르다는 것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아마 그의 연구에서 他人 호오강도가 미약하게 조작되었을 수 있다. 즉 그의

연구에서는 관계의 호오강도를 조작하기 위해서 強條件에서는 “매우” 좋아하는 사람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을 三者관계에서 사용토록 하였고 弱條件에서는 “약간만” 좋아하는 사람과 “약간만” 싫어하는 사람을 사용케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피험자들에게 “매우”와 “약간만”의 好惡度사이의 차이를 비교적 작게 만들었을 수 있다. 좀 더 P/O관계의 호와 오에서의 강도차를 넓히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他人호오강도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他人에 대한 好와 惡의 정도를 각각 “매우” “상당히” “다소” 및 “약간”의 4번주로 넓히게 한 다음 “매우”와 “약간”의 범주만을 사용하여 P/O관계 好와 惡의 強弱의 간격을 넓혀 그 효과를 알아보려 했다. 검증될 가설은 三者관계의 愉快도와 安定度 평정에 있어서 正的 P/O관계의 강도증가보다 負的 P/O관계의 강도증가가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과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從屬變因에 대한 P/O관계, 태도의 一致度, 및 균형효과를 비교하고 특히 균형효과의 패턴을 다시 심도해 보려한다.

方 法

被驗者. 全北大學校에서 심리학개론을 受講하는 의예과(27名) 및 치의예과(24名) 2학년 학생 총 51名이 피험자가 되었다. 이들의 資料 가운데(P/O관계 好惡의 強조건 26名과 弱조건 25名)에서 9名(強조건 5名과 弱조건 4名)의 반응 누락자가 제외되어 각 집단에는 21名의 피험자가 있었다(남자 36名, 여자 6名).

材料 및 節次. 본 실험은 正規授業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자료는 “대인관계 상황판단지”라는 題下의 11매로 된 질문지로서 공통적으로 2매의 지시문, 1매의 好와 惡의 인물의 이름 기록지, 및 Jordan(1953)型의 對人的 상황과 그에 대한 두개의 반응척도가 들어있는 8매의 상황판단지로 구성되었다.

지시문과 응답지는 洪大植(1980)의 연구에서 사용된 양식과 유사하였으나, “好惡의 인물 이름

기록지”는 피험자들이 8개의 상황속에 지시된 호오도에 따라 구체적 인물을 써넣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다. 호오의 정도에 따른 인물들은 正的 P/O관계에서 4범주(매우, 상당히, 꽤, 및 약간 좋아하는 사람)와 負的 P/O관계에서 4범주(매우, 상당히, 꽤, 및 약간 싫어하는 사람)로 구분되었다. 피험자들에게 이 8개 범주의 각각(+4에서 -4의 호오의 범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동성의 인물을 1명이상 써넣도록 하였다.

실험집단들은 好惡度 強과 弱條件으로 구분되었다. 好惡度 強조건에서는 8개 범주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4와 -4에 해당되는 인물을 Jordan (1953)型的 三者관계의 상황에 써넣게 하였고, 弱조건에서는 +1과 -1에 해당되는 인물을 써넣게 하였다. 피험자들이 三者關係의 상황에서 빈 칸으로 되어 있는 他人란에 해당된 인물을 일단 써넣었으면,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다고 가상하면서 상황을 다시 읽고 전체상황의 愉快度와 安定度를 평정케 하였다. 상황의 유쾌도 평정은 “매우 유쾌하다”(1점)에서 “매우 불쾌하다”(11점)에 이르는 11點 척도상에 표시하게 하였으며, 상황의 안정도 평정은 “매우 불안정하다”(1점)에서 “매우 안정되어있다”(11점)에 이르는 11點 척도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각 상황은 질문지에서 무선적 순서로 제시되었고, 強弱의 두 종류의 질문지는 질문지들을 차례로 섞어서 피험자들에게 무선적으로 배부되도록 하였다. 두 종속측정치에 대한 평정순서는 홀수의 학번을 가진 피험자들은 유쾌도 평정과 안정도 평정 順으로 평정케

하였고 짝수의 학번을 가진 피험자들은 그 逆의 순서로 평정케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따라서 본실험에서 집단 간 독립변인은 他人에 대한 好와 惡의 強度이었고, 被驗者內 독립변인은 P/O관계의 好惡 태도의 일치-불일치였다. 종속변인은 狀況의 愉快度와 安定度였다. 各 從屬變因에 대해서 실험설계는 2(他人에 대한 好惡강도)×2(P/O관계의 好惡)×2(태도의 一致度)의 要因設計였다. 균형 효과는 P/O관계 好惡와 태도의 一致度 사이의 相互作用으로 規定되었다.

結 果

P/O관계의 惡度增加가 好度增加보다 三者間 社會的관계지각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본연구에서 사용된 變量分析의 모형에 비추어 P/O관계 好惡강도와 P/O관계의 好惡사이의 相互作用效果和 P/O관계 호오강도의 主效果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효과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조건의 상황들에 대한 愉快度와 安定度の 평정치와 평균치를 계산하고 條件間 차이검증을 한 결과가 表1과 表2이고 이들 평정치들을 變量分析한 결과가 表3과 表4이다.

먼저, P/O관계 好惡강도와 P/O관계 好惡間의 相互作用效果를 보면 表3과 表4에서처럼 유쾌도 평정치에서는 有義치 못했으나($F=2.21$, $df=1/40$), 안정도 평정치에서는 有義하였다($F=4.70$, $df=1/40$, $p<.05$). 안정도 평정치에서 상호작용효과는 그림1과 같이 +P/O관계의 상황들에서는 好度 強條件($\bar{X}=6.79$)과 弱條件($\bar{X}=$

表 1. 他人好惡強度 條件別 三者間 社會상황들의 유쾌도평정의 평균치 및 차이 (t) (1)

P/O관계	X에 대한 태도	一 致		不 一 致			
		+++	+-	소계	+++	++-	소계
好	強	2.00	3.81	2.90	6.05	7.05	6.55
	弱	3.33	3.90	3.62	6.57	6.09	6.33
	t	2.26*	.10	1.12	.48	.99	.26
惡	強	8.10	7.14	7.62	7.80	7.61	7.71
	弱	7.28	6.52	6.90	6.28	7.09	6.69
	t	1.04	.76	1.08	1.76	.60	1.52

* $p<.05$.

(1) 兩方的 檢證.

表 2. 他人好惡強度 條件別 三者間 社會상황들의 安定度 평정의 평균치 및 차이 (t) (1)

P/O관계	X에대 한태도	一 致			不 一 致		
		+++	+-+	소계	+-+	++-	소계
好	强	8.66	7.33	8.00	6.33	4.80	5.57
	弱	8.66	7.05	7.86	6.38	5.10	5.74
	t	.00	.29	.18	.05	.29	.25
惡	强	4.09	5.42	4.76	3.71	4.61	4.66
	弱	5.29	6.43	5.86	6.10	6.00	6.05
	t	1.34	1.13	1.70	3.19**	1.55	2.87*

* $p < .05$. ** $p < .01$. (1) 兩方的 檢證.

表 3. 유쾌도 평정점수의 變량분석 요약

變散源	df	自乘平均	F	w^2
被驗者間	41			
好惡強度(A)	1	16.09	.62	.00
集團內	40	25.86		
被驗者內	126			
P/O好惡(B)	1	952.38	40.10**	.16
AB	1	52.60	2.21	.01
B×集團內	40	23.75		
一致度(C)	1	408.59	26.27**	.07
AC	1	16.10	1.08	.00
C×集團內	40	15.55		
BC	1	440.33	25.47**	.08
ABC	1	4.02	.23	.00
BC×集團內	40	17.29		

** $p < .01$.

表 4. 安定度 平정점수의 變量분석 요약

變散源	df	自乘平均	F	w^2
被驗者間	41			
好惡強度(A)	1	94.50	3.8	.02
集團內	40	24.76		
被驗者內	126			
p/o好惡(B)	1	421.17	21.64**	.08
AB	1	91.50	4.70*	.02
B×集團內	40	19.46		
一致度(C)	1	257.52	15.77**	.05
AC	1	12.60	.77	.00
C×集團內	40	16.32		
BC	1	180.23	9.35**	.04
ABC	1	2.38	.12	.00
BC×集團內	40	19.26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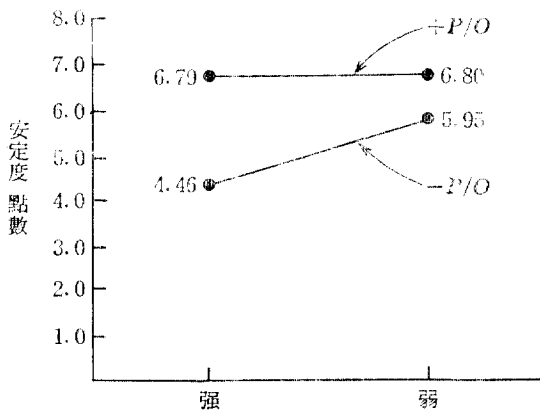


그림 1. P/O관계 強度別 +P/O와 -P/O狀況의 安定度 점수

6.80)間에 차이가 없었으나($t = .00$, $df = 1/40$), -P/O관계의 상황들에서는 惡度 强條件($\bar{X} = 4.46$)이 弱條件($\bar{X} = 5.95$)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평정을 받았고 그 차이도 유의하였다($t = 9.37$, $df = 1/40$, $p < .01$). 단, 强條件에서 +P/O와 -P/O상황들간의 차이는 유의하였고($t = 3.92$, $df = 1/40$, $p < .01$), 弱條件에서의 +P/O와 -P/O상황들간의 차이도 유의하였다($t = 7.35$, $df = 1/40$, $p < .01$). 따라서 安定度 평정치에서 P/O관계 好惡강도와 P/O관계 好惡間의 相互作用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에 따라서 P/O관계 好惡강도의 主效果, 즉, 전체 상황에 대한 유쾌도와

안정도 평정치에서 P/O관계 好惡가 强할 때가 弱할 때보다 더 負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유쾌도 평정치에서는 차이가 작았고, 안정도 평정치에서는 强조건($\bar{X}=5.63$)이 弱조건($\bar{X}=6.38$)보다 더 負的이어서 가설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유의치 못했다($F=3.81, df=1/40, p < .10$).

8個 상황 각각의 유쾌도에 대한 好惡의 强弱條件사이의 차이는 表1과 같이 유쾌도 평정치에서는 +++패턴에서만 차이가 유의하였고($p < .05$), 다른 패턴들에서는 모두 유의치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洪大植(1980)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된다. 한편, 안정도 평정치에서의 强弱條件사이의 차이는 表2와 같이 --+패턴에서만 차이가 유의하였고($p < .01$), 다른 패턴들에서는 유의치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洪大植(1980)의 연구에서의 +-+패턴에서만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 다르다.

P/O관계 호오강도의 一致度에 대한 영향은 예상대로 두 종류의 평정치에서 유의치 못하였다. P/O관계 好惡, 一致度 및 균형효과는 모두 有義하였다(각각, $p < .01$). 變量比(w^2)를 보면 유쾌도와 안정도 평정치 각각에 대해서 P/O관계 好惡의 효과가 가장 컸고(각각, 16%와 8%), 일치도 효과(각각, 7%와 5%)와 균형효과(각각, 8%와 4%)는 비슷하였다. 이들 세 변인의 變量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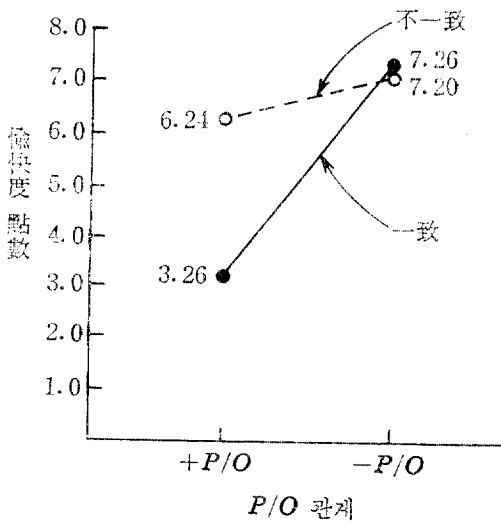


그림 2. 正·負 P/O관계에서의 一致와 不一致 상황의 유쾌도점수

는 洪大植(1980)의 결과보다 모두 더 작았다.

均衡效果의 모양은 그림2와 그림3에서처럼 愉快도와 安定度 평정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洪大植(1979, 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P/O의 상황들에서는 一致와 不一致의 상황 사이에는 평균치 차이가 큰 반면에 -P/O의 상황들에서는 一致와 不一致, 즉, 불균형과 균형상황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負的인 방향의 평정치를 보였다. 愉快度 평정치의 상황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P/O-일치와 +P/O-불일치 상황간($t=5.95, df=40, p < .01$), +P/O-일치와 -P/O-일치의 상황간($t=8.62, df=40, p < .01$)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P/O-일치와 -P/O-불일치 상황간($t=.18, df=40$)과 +P/O-불일치와 -P/O-불일치 상황간($t=1.44, df=40$)사이에서는 차이가 유의치 못했다. 安定度 평정치들에서도 차이는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P/O-일치와 +P/O-불일치 상황간($t=16.85, df=40, p < .01$)과 +P/O-일치와 -P/O-일치 상황간($t=5.52, df=40, p < .01$)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P/O-일치와 -P/O-불일치 상황간($t=.51, df=40$)과 +P/O-불일치와 -P/O-불일치 상황간($t=1.70, df=40$)에서는 차이가 유의치 못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Heider(1958)와 Newcomb(1968)의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P/O의 상황들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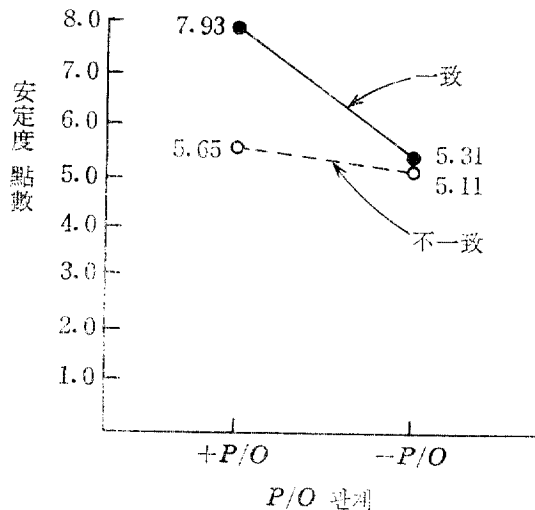


그림 3. 正·負 P/O관계에서의 一致와 不一致 상황의 안정도점수

균형된 상황(즉, $---+$ 와 $-+-$ 패턴)이 이들 두 이론에 맞지 않는 결과이다.

論 議

본 연구에서의 P/O관계의 強度의 효과는 +P/O관계보다 -P/O관계에서 더 크다는 가설은 安定度평정에서 지지되었다. 그러나 愉快度 평정에서는 이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다. 狀況의 유패도는 Heider의 제자인 Jordan(1953)의 논문에서부터 자주 사용되어온 반면에 안정도는 더욱 최근에 Crano와 Cooper(1973)에 의해서 사용된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三者관계의 狀況들간의 一對比較(paired-comparison)는 유패도 차원에서는 尺度化가 가능치 못하였으나 안정도 차원에서는 가능하였었다. 그렇다면, 이 두 차원의 속성상의 차이가 문제가 된다. 유패도가 감정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고 안정도가 비교적 인지적 차원에 속한다고 가정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他人 호오강도는 感情的 평정보다 認知的 평정에서 相互作用效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균형이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균형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지 더욱 명료화될 필요성이 있다. 균형이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직접적 영향력이 있는 유패나 불쾌가 아니고 Jordan(196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적인 合當性(propriety)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三者관계에서 무엇을 예언할 수 있는지 문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균형이론에서 시급한 일은 “상식 심리학”에서 더 진전되어 불균형이라는 獨立變因과 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從屬變因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8個 패턴 각각에 대한 P/O관계 好惡強度 효과는 유패도 평정치에서 $+++$ 패턴만이 유의하였고, 안정도 평정치에서는 $---+$ 패턴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들은 모두 균형 이론상으로 균형된 상태로 규정된 패턴들이다. 이러한 균형된 패턴에서만 他人 好惡강도의 효과가 왜 나타나게 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 패턴과 동일한 심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 패턴과, $+-+$ 패턴과 동일한 심리적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는 $---+$ 패턴에서는 他人 호오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러한 효과는 피험자들에게 느껴지는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 나타난 것 같이 생각된다. 심리적으로 三者관계의 狀況들이 더 쉽게 또는 더 명료하게 인식될 수 있는 狀況들에서는 피험자들의 注意가 他人 好惡강도로 돌려져서 그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반면에 다른 패턴들에서는 관계들의 주관적 복잡성이 커서 P/O관계의 好惡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며 P/O관계 호오강도의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검증키 위해서는 먼저 피험자들의 狀況 이해도나 狀況의 숙지용이성에 대한 측정치를 미리 얻을 것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균형의 패턴은 유패도 평정과 안정도 평정이 매우 유사하였고 이 패턴은 특히 -P/O관계의 不一致 狀況들에서 Heider(1958)나 Newcomb(1968)의 이론과 부합되지 않는다.

필자(1980)는 이미 三者관계의 狀況의 여러 종속측정치에 대한 예언은 균형효과보다는 他人에 대한 好惡와 態度의 一致如否에 의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Lewin의 場理論에서의 유인가(valence)의 개념과 비슷하게 +P/O관계의 狀況을 +價(valence)로 그리고 -P/O관계의 狀況을 -價로 간주하고 태도의 一致를 +價로, 그리고 태도의 불일치를 -價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생각을 좀더 확장하면 三者관계의 狀況은 P/O관계의 好惡에서 나오는 心理價와 태도의 一致여부에서 나오는 心理價의 두 원천을 갖는 狀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Heider의 8個 狀況은 각 사회적 狀況에 대해서 두가지 심리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한 狀況에서 함께 작용되는 狀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表化하면 表5와 같다.

表5에서 心理價(psychological valence)는 그 자체의 力動的 性質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價는 그 자체 안정된 것이고 愉快的 심리적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며 접근하려는 경향을 일으킬 것이고, -價는 그 자체 不安定하

表 5. 여덟 종류의 三者관계의 心理價와 언어적 記述

관계의 유형	심리가	언어적 記述
+++	++	접근-접근
+-	+ +	접근-접근
+ - +	+ -	접근-회피
++ -	+ -	접근-회피
- + +	- +	회피-접근
---	- +	회피-접근
-- +	- -	회피-회피
- + -	- -	회피-회피

고 不快한 심리적 상태를 일으키며 회피하려는 경향을 일으킬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지금까지의 이 분야의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P/O관계 好惡變因과 態度의 一致變因의 主效果가 매우 強力한 점에서 지지될 수 있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表5에서 보면 Heider의 균형상태는 두 個의 心理價가 同一한 부호를 갖는 것이고 불균형 상태는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상태로 개념화될 수 있다).

三者관계의 갈등상황적 해석에서 두번째 가정은 심리가의 결합양식, 즉, 두 個의 심리가가 그 상황에 대한 전체적 반응(이 반응에는 감정적 및 인지적 반응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일단 가정한다)을 결정키 위해서 어떻게 결합되어 지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두개의 심리가가 결합되어 지는 樣式은 심리가가 동일한 부호일 경우에는 加算의으로 결합되고 서로 다른 부호일 경우에는 對比의으로 결합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하면 심리가 ++와 --의 상황은 각각 +2와 -2의 심리가를 갖는 상황이 되고, 심리가 +-와 -+의 상황은 부호의 積에 의해 전체상황은 -상황으로서, 對比效果에 의해서 모두 -2의 심리가를 갖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은 다소 사후해석에 기초된 것이지만 본 연구의 그림3과 그림4에 있는 결과와 같은 이 분야의 많은 結果들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P/O관계와 態度의 一致度에서 나오는 各單位의 心理價가 結合될때, 각각의 相對의 強度에 따라 어떤 全體的 심리상태를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理論的 詳細化가 加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런 상세화와 아울러 正的關係의 강도증가보다 負的關係의 강도증가가 갖는 더 큰 比重을 고려함으로써 對人關係 狀況의 각 유형이 지각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趙兢鎬. 刺戟의 극단성과 자아관여 수준이 印象形成에 미치는 영향. *韓國心理學會誌*, 1976, 2, 51-59.
- 洪大植. 三元的 關係知覺에서의 他人과 對象의 具體性, 均衡, 및 性的 영향. *韓國心理學會誌*, 1979, 2, 217-232.
- 洪大植. 他人과 對象의 好惡強度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未發表博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1980.
- Anderson, N. H. Averaging versus adding as a stimulus 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2, 1-9.
- Baldwin, A. L.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67.
- Brown, J. S. Gradients of approach and avoidance responses and their relation to level of motivation. *Journal of Comparative and Physiological Psychology*, 1974, 41, 450-465.
- Cartwright, D., & Harary, F. Structural balance: A generalization of Heider's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956, 53, 277-293.
- Crano, W. D., & Cooper, R. E. Examination of Newcomb's extension of structural balance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3, 27, 344-353.
- Dollard, J., & Miller, N. E. *Social learning and imitation*.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41.
- Feather, N. T. A structural balance model of communication effects. *Psychological Review*, 1964, 71, 291-313.
- Feather, N. T. A structural balance approach to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effects. In L.

-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 1967.
- Feather, N. T. Organization and discrepancy in cognitive structures. *Psychological Review*, 1971, 78, 355-379.
- Feldman, S. Motivational aspects of attitudinal elements and their place in cognitive interaction. In S. Feldman (Ed.), *Cognitive consistency*. New York: Academic Press, 1966.
- Heider, F. Attitude and cognitive organ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1946, 21, 107-112.
-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1958.
- Hodges, B. H. Effect of valence on relative weighting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39, 373-381.
- Insko, C. A. *Theories of attitude change*.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1967.
- Jordan, N. Behavioral forces that are a function of attitudes and cognitive organizations. *Human Relations*, 1953, 6, 273-278.
- Kiesles, C. A., Collins, B. E., & Miller, N. *Attitude change: A critical analysis of theoretical approaches*. New York: Wiley, 1969.
- Miller, N. E. Liberalization of basic S-R concepts: Extensions to conflict behavior, motivation and social learning.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2). New York: McGraw Hill, 1959.
- Murstein, B. I. Critique of models of dyadic attraction. In B.I. Murstein (ed.), *Theories of attraction and love*. New York: Springer, 1971.
- Newcomb, T. M.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1953, 60, 393-404.
- Newcomb, T. M. Individual systems of Orientation.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3). New York: McGraw-Hill, 1959.
- Newcomb, T. M. Interpersonal balance. In R. P. Abelson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 Chicago: Rand McNally, 1968.
- Warr, P. Inference magnitude, range and evaluative direction as factors affecting relative importance of cues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30, 192-197.
- Wellens, A. R., & Thistlethwaite, D. L. An analysis of two quantitativ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Psychological Review*, 1971, 78, 141-150. (a)
- Wellens, H. R., & Thistlethwaite, D. L. Comparison of thre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1, 20, 82-92. (b)

The Effect of the Strength of Liking and Disliking of the Other Person on the Perception of Triadic Social Situations

Dae-Shik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t was hypothesized that an increase in the strength of disliking compared to that in the strength of liking would have a greater effect on perception of the pleasantness and the stability of the triadic social situations. All subjects were instructed to write the names of several persons whom they liked strongly, considerably, fairly, and mildly. While one experimental group wrote the strongly liked and disliked persons into the triadic social situations, the other experimental group wrote the mildly liked and disliked persons. The hypothesis was supported in stability ratings but not in pleasantness ratings. The overall pattern of the balance effects did not support the Heider's(1958) and Newcomb's(1968) theories. A new model similar to the conflict model was suggested to explain these data.